

하나님의 사명인 화해

파괴적인 분쟁과 분열의 세상 속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

전세계의 47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쓴 2005년 논문

개요

서론

I. 화해의 비전

II. 화해의 배경

분쟁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

교회 과 사명 배경

III. 화해를 향한 소망

화해의 성서적과 신학적 기초

화해의 범위 화해의 진행과정

화해의 표징

IV. 결론 과 권면

화해를 기독교 선교의 중심에 둠

V. 정의

VI. 논문에 참여한 분들

서론

이 논문은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인 화해을 향한 신학적 비전을 소개합니다. 소망의 징표를 나타내면서, 이 논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잘못된 복음을 부추기는 것과 더불어 오늘날 전세계에 걸쳐 일어나는 수 많은 분쟁과 분열에 어떻게 사로잡혀 있는가를 분석합니다. 이 논문은 성경적인 총체적 화해을 21세기 기독교 선교의 중심에 두는 것을 논의합니다. 이것은 사명과 제자훈련, 복음전도, 공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화해의 사명에 관련된 교회에까지 비평적으로 재검토해 가면서, 개인적 회심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까지 시급히 요청되어집니다.

이 논문은 6대륙 21개 나라의 47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신학자들, 선교학자들, 종교 실천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분쟁에 심하게 시달리는 곳들의 학자들-에 의해 신중히 작성되었습니다. 그들은 2004년 9월, 세계 복음화의 로잔 위원회에 의해 조직된 태국의 파타야에서 열렸던, 국제 복음화 2004 포럼에서 31개의 논의 단체중 하나로 모였습니다. 화해의 논의 단체는 개신교 복음주의자들, 오순절 주의자들, 그리고 교파의 지도자들, 두 분의 카톨릭 성직자들, 그리고 한 분의 그리스 정교회 성직자를 포함합니다.

이 논문은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회중들이 연루된 르완다의 대량학살이 있은 후 10년 뒤인 2004년 7월에 르완다의 키갈리에서 단체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작성했습니다. 태국에서의 집중적

인 논의 끝에, 이 논문은 개정되었고 2005년 1월에 47 명 모두의 합의 하에 승인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이 단체는 화해을 위한 국제 기독교 네트워크를 형성함을 통해, 또한 그들이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을 통해, 이 계속되는 사역에 동참할 것을 맹세하면서 파타야 언약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들의 태국에서의 여정은 2004 포럼이 시작되기 전, 르완다의 후투 와

서론

듯시 사이에,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 사이에, 그리고 개신교와 카톨릭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의 성직자들 사이에, 서로 감동적으로 발을 셋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분열된 세계의 경계선들을 넘어서서 서로 발을 셋으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표징은 우리 세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이 논문이 공식적인 로잔의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잔은 이 논문이 가능한 많은 지역에 배포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분열된 세계에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새로운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배서인들을 참여시키고 이 일을 지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네트워크를 위해 개발된 웹 사이트, (www.reconciliationnetwork.com) 이용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논의 단체의 파타야 언약, 사례 연구,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를 이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출처를 밝히는 한, 이 논문은 서문을 포함해 논문 전체를 복사, 재판, 번역, 그리고 배포할 사용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비판, 반응들, 논평, 또한 배포에 관한 질문들이 있을 때는 아래의 네트워크 연락 담당자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uke Divinity School, Center for Reconciliation
Box 9096
Durham, North Carolina 27708-0968 U.S.
crice@div.duke.edu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 44-45)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27-
28)

I. 화해의 비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해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19-20)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
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책을 주
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
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린도 후서 5: 17-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 19-20a)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팝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
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바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I. 화해의 비전

타락하고 무너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명은 ‘화
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인 ‘화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자신, 다른 이들, 그리고 창조물과의 관계를 포함
하는 총체적인 것으로 증거합니다. 이 사명은 인간의 타락
에서부터 그리스도안에서 새 피조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
변해오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마지막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 화해의 사명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삶, 사역과 전도,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해
된 것과 같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시는 화해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우리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변화함을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하나님
의 일하심이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 족속, 방언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생명의 나무이신 어린양을 경배할
것이고, 그 나무의 잎들은 모든 나라들을 치료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화해된 모든 것들과 함께 하
나님의 통치하심을 실현할 것입니다 (로마서 8:18-39, 요

한계시록 7:9-17; 21-22:5).

이 모든 것에 응해서, 신자는 화해이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예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는 것과 (마 28:18-20), 고통 받는 세상을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I. 화해의 비전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된 몸의 살아있는 표적으로, 부서지고 무너져 버린 세상에 희망과 총체적 화해의 수행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화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그에게로 화목”(골 1:19)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세상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의 사절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 세대에 있어, 화해의 일에 위험한 장애물은 온 세상에 퍼져있는 파괴적 분쟁 뿐 아니라 이러한 분쟁들에 휘말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족과 종족, 인종주의, 성차별, 카이스트 제도, 사회적 계급, 혹은 민족주의 피가, 세례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고백의 물결보다 더 강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쟁들 속에서, 교회의 신앙이 고통 받는 것이 명확한 가운데, 세상이 무너짐을 가속화 시킴에 대한 그리

스도인들의 자책감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교회가 속박됨은 이것이 적극적으로 분쟁과 파괴를 가속화 하던, 이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던, 잘못된 복음을 부축이던, 직접적인 동시에 또한 간접적이다. 최근 합법화된 남아공의 인종차별, 발칸반도의 ‘민족말살’, 르완다의 대량학살, 미국의 인종차별과 자기민족 중심주의의 역사를, 민간인 학살과 테러와 북아일랜드에서의

I. 화해의 비전

세트주의, 인도의 달릿뜨라는 불가촉천민과 카스트, 오스트리아 원주민의 비참함, 한반도 문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인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분쟁등을 포함한 최근 현재 상황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비통하게도 양극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기도와, 분별력,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의 사명과 관련된 선교, 전도, 제자훈련,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신랄하게 재점검 해야 함을 요합니다. 이것은 부흥과 교회개척이 되어왔던 장소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웃들을, 심지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살육했던 엄청난 학살의 장소들 (1994년 르완다와 같은)에 특별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분쟁들 가운데서도 화해에 대한 목마름의 징조들은 교회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해를 위한 가장 희망적인 돌파구를 형성해왔습니다. 성경적으로 종체적인 화해의 사절단이 되는 일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죄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이에 동참토록 이끌어낼 뿐

아니라, 기꺼이 용서하고 회개와 값진 화해의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II. 화해의 배경

분쟁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그의 창조물 간의 자연적 합일과 삶의 완전성을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이미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은 이 연합을 파괴했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에서 보듯 불화를 초래했습니다. 파괴적인 분쟁이 이 같은 불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란 측면에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역사적 사회적 권력들, 부당한 시스템들, 그리고 “악한 영의 영향력들”(에베소서 6:12) 또한 세상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의 사역을 전달해온 일은 단지 순전하게 분열된 역사적 흐름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해롭고 혼탁한 역사를 속에서 더러워진 채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민족과 종족, 인종주의, 성차별, 카이스트 제도, 사회적 계급, 혹은 민족주의의 피가, 세례와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의 물결보다 더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좁아지고, 더욱 다원화 되며, 세계화 된 우리의 세상에서, 사회적 분열의 현상들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해를 부르짖게 하는 파괴적 분쟁들은 공개적인 분쟁인 동시에 불의, 분열, 격리가 끊이지 않는 “좀더 고착된” 상태들이기도 하다. 역사적 사회적 분쟁들의 상호연관 된 네 가지 측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II. 화해의 배경

과거와 과거의 아픔; 그 과거가 어떻게 이름 지어지고 기억되어졌는가; 현재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일에 관련되어있는가; 그리고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마음에 그려지는가.

과거와 그때의 아픔이라는 측면에서, 파괴적인 사회적 분쟁들과 현실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과 같지 않습니다. 각각의 아픔의 뒷면에는 감영성 같은 역사를, 특히 사회, 경제, 정신적, 제도적, 그리고 정치적 요소들과 권력들, 어제의 억압의 피해자들이 지금의 억압자들이 되는 현실 등과 같은 파괴의 굴레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¹

화해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잘 이름 짓고 잘 기억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회적 분열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은, 이들간의 상호연관성을 잘 인정치 않지만, 범죄자들이 됨과 동시에 죄지은 수동적 방관자들이며, 죄지은 능동적 평화의 사절단들이고, 이 간하는 단체이며, 진리를 놓고 여러 모양으로 대립하는 일에 서로 굳게 결속된 그리스도인 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면에서 이들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은,

회개함과 용서함으로 인도되어, 실제 있어왔던 진리를 담대하게 이름 짓고 찾는 일입니다. 이것은 나뉜 경계선들을 뛰어넘어 나누어진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수반해야만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의 변형되어버린 방법들에는 거부, 사회적 건망증, 용서치 않는 것, 어떤 단체와 그들만의 역사의 무비판적인 확인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는, 과로운 기억들과

II. 화해의 배경

해결되지 않은 과거와 끊임없는 아픔의 결과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문화를 잠식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 꺼지지 않는 불신과 두려움, 아픔, 거부, 보복으로, 또한 종종 이러한 현실들을 악용하는 정치와 경제를 되 물립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어버린 단체들은 권력을 위해 다투며, 지역 사회들로부터 분열, 소외되는 일에 그들 스스로를 내어 버리고 있습니다. 만약, 전 인류의 안전은 전혀 무시된 채, 어떤 특정 그룹의 개인적 안전만 보장하는 군국주의가 선택된다면, 분쟁은 아주 파괴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말 것입니다.

분열되어 버린 단체들은 과거와 현재의 이런 영향력들에 대항하면서, 우정과 단결과 일치된 세상으로의 미래를 꿈꿀 수 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단체들을 이방인으로, 낯선 이들로, 혹은 흑인과 백인, 르완다의 후투족과 와투시족, 인도의 청결계급과 불가촉 천민계급, 남한과 북한, 테러리스트와 테러의 수해자, 등과 같이 ‘적’으로 영구적 분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분열은 이제 흔히 볼 수 있고, 받아들여질 만하며, 심지어 피할 수 없게 끔 되어

갑니다.

교회와 사명의 배경

그리스도인이 분열과 파괴적 분쟁들에 대해 수동적 방관자가 되고, 화해을 만드는 수행자가 되기를 거부할 때,

II. 화해의 배경

우리는 이웃에 사랑을 전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며, 이 세상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현실도피의 수 많은 이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화해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교회에 의해 명명되어지고 소멸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회적 문제에 침묵하는 이원론적 신학들은 대적들을 단지 인간이 아닌 악한 영들로 취급하고, 사회적 변화 없이 개인구원의 충족성 혹은 그리스도안의 개인적 회심이 없는 사회적 참여로만 이루어진 충족성을 가르칩니다.
- 민족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혹은 민족주의 등은 어떤 인종, 문화, 성별, 혹은 국가단체의 자급성에 오류를 범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마치 그 단체 속에서 그들의 사욕만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며 충성인 것처럼 조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충성의 대상은 우리에게 “나 자신” 뿐 아니라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한 분 이십니다.

- 근본적으로 다른 단체들의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잘 못된 믿음은 그들 간에 만든 영구적인 경계선들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간에 우월을 가려 구분된 순위를 만들어 내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인 함의 후손들을 저주 했다고 가르치는 함족의 이념을 포함합니다. 이

II. 화해의 배경

것은 이단입니다. 이러한 이념에 뿌리박은 것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지지하는 것에는, 미국의 인종차별, 남아공의 인종차별, 르완다의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이기주의의 정신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나는 불화와 경쟁, 혹은 많은 교파들과 교회들, 기독교 협회들과 사역들을 타락시키는 한탄스러운 분파와 분열에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분파와 이기주의는, 화해를 필요로 하는 세상의 요구를 인식치 못하게 하고, 교회의 사역에 심각하게 해를 끼칩니다.
- 회심하는 자와 교회 개척의 숫자를 기독교 성장의 주된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것과, 교회들과 사역들이 표면적인 제자훈련으로 인해, 균등하게 혹은 분열과 소외의 역사와 시스템을 영속화하면서 자라도록 허용하는 것. 이러한 영속하는 경계선들과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로 한정 짓는 분열된 삶들을 무언으로 승인하는 것은 분열된 집단들 사이에 발생한 균열을 거짓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자가성찰 능

력을 무능하게 해버립니다.²

- 얇팍한 해결책들을 부추기는 값싼 은혜에 깔려있는 메시지, 사회적 고통에 동참하기에는 무능하고 피상적인 제자훈련, 또한 회개함이 없는 화해 등.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성경적 신학에는 교회의 사고와 삶을 새롭게 할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러한 도피의 이념들을 대항해서, 교회는 진

II. 화해의 배경

정한 화해을 촉진하는 신학적 대안들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다른 경우를 보자면, 부흥이 휩쓸어가는 곳과 교회 성장이 있는 곳에는, 기독교인들은 승리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의 부흥운동과 교회가 개척되는 곳들을 덮쳐온 파괴적인 분쟁에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자신을 성찰하고 충분히 통찰하는 것에, 혹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분에 실패하였나?”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발견하는 것에 실패해왔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위기의 때에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혹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상황들에 너무나 자주 침묵해 왔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복음주의적인 것과 예언적인 것의 양분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을 개인적 거룩함으로 이끄는 것과 함께, 예언적 사회를 존재케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삶과 비기독교인 이웃들 그리고 파괴적 분쟁들과 사회적 현실들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적 권력들과 지배 권력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합

니다.

예시적 교회가 될 능력은 세가지 입장들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다원주의의 입장은,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주권성을 없애가며, 개인적 회심없는 사회적 변화를 촉진합니다. 침묵주의자의 입장은, 대중 앞에서 사회적으로 증거 하는 것을 잊어가며, 사회악을 개념치 않고, 사람들이 탄압 받을 때 침묵하며, 사회적

II. 화해의 배경

변화 없는 개인구원의 충족성을 내세웁니다.

동화주의자들의 입장은, 모든 예시적 간격을 잊어가며, 성경을 사회적 혹은 정치적 추방의 현상유지를 지지하기 위해 잘못 사용하거나, 기독교 당파를 특정지배세력과 하나로 결합하는 일에 잘못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흔히,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계층의 자기 만족인, 편한 중립정책의 죄를 나누어 주고있어, 현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활발히 노력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신학적 권력과 영향력의 방편들을 통솔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신학에서 모든 예시적 목소리와 복음을 토착화 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종종 현상 유지의 입장들을 지지하거나, 혹은 아주 드물게 비판적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안에서 용서함은 과거와 현재의 비극과 부정의에 대해 교회의 신실한 직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죄 고백과 용서, 그리고 기쁨으로 두드러진 삶에서의 값진 화해를 이루어 가도록 배울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선언하고 무너진 세계에 희망의 비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III. 화해의 소망

성서적과 신학적 화해의 기초

세계가 깊은 무너짐 속에 허덕일 때, 부활의 주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화평은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왕성한 결과를 이루어내면서, 하나님과의 연합, 인류상호간의 연합, 그리고 물질적 창조물과의 연합을 위해 계획하신 목적이 인류와 화해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땅 위의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골 1:15-20) 하나님의 총체적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완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화해됨을 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마 22:37-40) 는 주님이 주신 두 계명에서 증거 되어 집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사이의 적대감의 나뉘어진 벽을 허물며, 둘로 나뉜 인류를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 만들며, 화평을 세워가며, 화해을 위한 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화해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무너진 곳에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완전함은, 살롬이라는 귀중한 성서적 관념에 의해 사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살롬은, 어떠한 민족주의적 혹은 정치적 당파심이 강한 성향에서도 비롯된 것이 아니며, 성경 전체 말씀 안에서 기초를 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에 의해 무너져버린, 창조의 근본적 완전성으로부터, 언약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반응에 까지,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주님이 허물어 내리시는 것까지,

III. 화해의 소망

살롬은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요 14:27) 하나님의 화평으로써의 살롬은 그들의 개인적이며 공동적인 하나님과 또한 상호간의 관계성에 있어, 완전함, 행복, 모든 사람과 타 피조물의 번성함으로의 미래를 구상케 합니다. 화평으로의 살롬은 영적, 육적, 인식적, 감정적, 사회적, 사회 활동적, 경제적인 모든 측면의 인간의 삶을 덮어버립니다. 살롬은 그리스도 안의 개인적 회심과 동시에 사회적 변화를 통한, 자비, 진리, 공의, 그리고 화평함을 추구합니다.³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모든 이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화해은 또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표징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개인과 단체가 다른 개인과 단체를 대적함으로 세워진 어떠한 파괴적이거나 혹은 비인간적 장벽들에 그리스도인들이 대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에 의해 고통의 역사적 상황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인도되어지며, 부활의 주님에 의해 담과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동 생활을 형성하도록 인도되어집니다.

위의 세 단락을 통해 하나로 합축되는 신학적 암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화해의 사역은 복음전도 사역과 제자 만들기를 위한 전체적인 배경이

III. 화해의 소망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은 가장 중요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의 회복을 위한 수행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총체적 화해의 수행원이 되는 것은 무시한 채, 복음 전도만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완전한 진리와 하나님의 사명을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총체적 화해의 사역을 구체화 하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 교회의 신실한 가르침을 통해, 또한 계속되는 기독교적 실천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원수들을 향해 철저히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회심이란 극심한 여정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들은 파괴적 분쟁을 대항하는 수단들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유하고 화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화해의 사명은 소명에서부터 시작되어 화해된 공동체가 되기까지 훌려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불리신 그리스도에게 친밀히 결속된 그리

스도인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0-23).

III. 화해의 소망

또한,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께서라는 진리에 의해 분명히 형성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제자훈련은 “값싼 은혜” 와 알파한 해답들을 거부하면서, 고통스러운 역사적 분열, 종오, 세상 물리적 공간에서의 파괴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집니다. 이것은 또한, 오랜 벽들과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공동체와 희망의 새 그리스도 공동체와 분열된 사람들 간의 적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향에서 살아가기 위해,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집니다.

화해과 정의의 추구는 상호 협력적으로 나아갑니다. 죄가 명명되지 않고 공적으로 심판되지 않고, 유죄로 판결되지 않는다면 화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압제를 되갚지 않는 것은, 고통 받는 자들과 악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더 더욱 불공평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를 되갚는 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로마서 12:19).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 악습,

잔악함을 심판하셨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의 치유를 향한 공의를 추구하도록 인도합니다. 총체적인 화해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은, 원수들과 분열된 사람들 간의 미래의 공통적 삶에의 희망을 열어 놓은 채, 보복적이 아닌 우선적으로 회복적인 의미의 공의를 추구하는 현신함이라

III. 화해의 소망

볼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육체와 혈기가 아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의 화해을 향한 추구함과, 과거적인 세력과 관념,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베소서 6:10-18)을 대항하는 싸움에의 보이지 않는 신성한 차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적 분쟁가운 데서 기독교 사역의 중심에 “성령 안에서”(에베소서 6:18) 기도와 분별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화해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함의 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름 그 자체, 혹은 분쟁은 화해을 향한 부름의 필수적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이는 또 다른 언어일 수 있고, 혹은 우리를 풍성케 하는 선물로써의 또 다른 문화입니다. 종종 문제는 억압의 의지가 어떻게 그 다른 점들을 이용하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사명이 인간의 다양함을 없애지 않는 한, 이것은 하나님과 친교를 가져오기 위해 또한 인간의 문화들을 변화시키는 면에서 이웃하기 위함을 구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문화를 지지하는

곳을, 복음이 대립하는 곳을, 또한 복음이 변화를 장려하는 곳을 조심스럽게 또한 지역적으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외인에게, 따돌린 자에게, 거절 당한 이에게, 그리고 원수에게 자기자신을 열어가도록 부르심을 입었고, 적의의 찬 삶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III. 화해의 소망

이러한 개방성은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이의 관계를 발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어떤 이가 변화의 측면에서 문화를 어떻게 연관 지어 가는 가를 바꾸어갑니다.

화해을 추구함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이러한 추구가 이 세상에서의 분쟁이 끝내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이를 변화시킵니다. 참된 화해과 평안은 오직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화해 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화해이 이 세상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본질적인 치유에의 소망은 없습니다.

화해의 범주

화해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는, 이것이 아무리 작은 행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아주 큰 중요한 것입니다. 화해의 범주는 한 개인의 삶의 치유로부터, 두 사람간의 증오심을 극복하는 것에까지 뿐 아니라, 화해하기를 원하는 오랫동안 분열된 사람들과 나라들에 까지 이릅니다.

이러한 분열된 사람들간의 화평의 중재인이 되는 일은 부차적이거나 선택적일 수 없으며, 이것은 교회개척과 제자 만들기와 더불어 기독교 사역의 중심이 됩니다. 게다

가, 이러한 희생이 큰 일과 이 것이 초래하는 박해는, 이 박해가 아니었더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태복음 28:20) 제자를 만드는 일의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화해의 일은 신학적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III. 화해의 소망

최근 세계동향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의 세계”를 위한 목적을 공급하기 위해 보편성이라는 공통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 만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희망의 중심이심을 증거하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이웃에 관한 정의 (눅 10:25-37)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참여로, 평화로움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 특별히 이방인, 원수들, 빈곤자들, 인종과 종교적인 측면에서 모두 외면당한 이들과 바로 그 공동체를 추구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화해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아닌 공동체에서 추구되어지는 방법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사람들과 소외된 계층의 전적인 삶들을 요구하며 이는 정부를 포함한 어떠한 권위도 요청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합법적 노력 혹은 인간의 시도가 할 수 없는 용서함과 치유를 가지고 오며, 근본적인 회개와 기쁨으로 그의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주님은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깊이 관여 하게 하며, 갑비싼 대가와 더불어 참을 수 없거나 평화공존이 불가능한 무너져버린 관계들을 치유하기 까지 요구하십니다.

이런 증거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교회는 평화를 세워가기 위해, 그분과 화해된 공동체가 된 산 증거로써, 교회 스스로 하나님의 평안을 구체화 해야만 합니다. 세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 가족임을 확인케 합니다. 그들의 가족들 안에, 지역 교회들 안에, 그리고 더

III. 화해의 소망

큰 그리스도인 가족공동체와 우리의 비극적인 분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함, 희생적 사랑, 경계선을 넘어섬, 그리고 마태복음 18:15-20의 말씀에 나타난, 분쟁을 치유하기 위한 합심기도와 같은 특별한 증거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고, 화해을 구하지 않는 곳마다 교회의 사역은 심각하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성경적 화해은 또한 교회 모임 바깥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렬하게 분석하고, 참여하게 하며, 우리 지역 공동체와, 나라들, 또한 세계에 영향을 주기위한 교회 단체만을 넘어서도록 인도합니다. 기독교적 확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선의의 사람들과 창의적으로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공적약속의 중심에는 예시적 책임이 정치권력가들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지배권력들은 적합한 계급과 평화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그들의 행동을 위해서 주권자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합법적인, 정부 차원의, 그리고 국가적인 노력들은 적대감을 없애고, 진리와 함께, 교회가 가져올 수는 없으나 교회가 지지해야만 하는 이러한 실천들을 일반인들이 함께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노력들과의 협력은 1990년 있었던 남아프리카의 진리와 화해의 위임과 같이, 오히려 분명한 방법으로 그들의 결과들을 높이 드러냅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노력의 참여들이 교회의 화해의 사명을 근본적으로 끝을 내게 하거나 한정적인 영역이 될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III. 화해의 소망

노력들은 조심스럽게, 비판적으로, 장정적으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주체성, 혹은 예시적 목소리를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화해의 진행과정

화해는 멀고도 값비싼 과정입니다. 화해는 일회적이지 않으며, 진전되는 일직선상의 여정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들과 섞여있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길에서 벗어서 사랑하기 어려운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며, 화해을 계획적이고도 힘차게 추구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값비싼 여정은, 예배와 말씀읽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귀를 기울이는 실천들에 양육되어진 소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세상의 고통을 받아들임에 따라, 마침내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화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희망은 그 과정을 추진하게 합니다.

성서적으로 이해해볼 때, 역사적 분쟁에 있어, 다수집단 이거나 소수집단 이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침략자

이거나 피해자이거나 를 막론하고 어떠한 한 집단도 화해 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데 더 큰 부담을 가지지는 않아왔습니다. 화해을 위한 시작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고통의 소유권을 택할 용기를 찾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화해 은 또한 비극적 상황을 피하지 않는 곳에서, 분열된

III. 화해의 소망

곤궁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또한 다른 이의 인간성을 발견하면서 변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의 용서함을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합니다. 원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용서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죄의 고백과 참된 용서를 자기 자신들에게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적극적으로 전하도록 조건 없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되돌려 받거나 보답 받는다는 혹은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약속이 없이 실천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세워나가는 것은, 광범위하게 되는 행위와 특별히 사회적으로 무시되어온 자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죄의 고백 혹은 용서가 방향이 같은 한쪽에서 행해지는 반면, 분열된 사람들간의 화해은, 모든 단체들의 변화를 다져감과 동시에 값비싼 희생들을 치르는 계획되어진 관계 속에서의 위험하며 상호적인 여정을 요구 합니다. 화해의 중재자들은 자신의 사람들에게서는 반역자로 비쳐질 수 있고 종종 양쪽 방향에서 고통스럽게 걸어 다니는 다리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파괴적 분쟁의 가해자들 뿐아니라 안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특권을 가지는 방관자들은 모두 상처받고 괴로워 하는 자들의 상황을 위해 책임을 져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의 고백과 슬픔은 분쟁에 관한 대화를 열어가면서, 이것의 진실성으로 인해 위해한 결론을

III. 화해의 소망

맞이할 것을 기꺼이 준비하면서, 종종 시험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화해에 대한 장벽은 우리를 가해한 사람들과 단체들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화해을 위한 첫 발걸음은 우리를 아프게한 상처와 그 잔여물을 맞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기는 강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화해의 움직임들은, 역사적으로 소외당한, 사단에 승리한 주님을 선포하고, 상대측을 악마로 몰지 않고 진리를 말하며, 그들의 압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바로 그 공동체와 분열된 선을 가로지르는 공동생활의 미래를 위해 일한, 역사적으로 소외당하고 압제 당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시작되어 왔습니다.

화해의 표징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화해이 어떠한지 아시며, 모든 족속과 방언으로부터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린양 앞에 경배할 때 (계 7:9-10) 의 충만함을 아십니다. 화해은 계속해서 추구해야 것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희망의 표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노력이 진행될 때, 분쟁과 저항은 종종 더

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해의 표징은 세상을 침노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그 표지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교회생활로부터 신실함의 실천에까지, 또한 사회의 변화들에 까지,

III. 화해의 소망

간절히 이러한 희망의 표징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희망, 삶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의 더욱 근본적인 비전을 주입하고 도전하는 중요한 표징이 되어야만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교회생활의 본보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게 나뉘어진 경계선을 가로질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교제를 형성하고, 환대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함께하며, 성찬식을 기념하고, 상호간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월감, 열등감, 그리고 이탈해 나가는 습관을 버립니다; 함께 축하하고,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차별하는 기독교 단체에서와 잘못된 자료의 사용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인종의 한계선과 나뉜 경계선들을 가로질러, 새로운 공동체의 표시가 되면서 혼합된 가족들과 결혼을 합니다; 교회의 선택적인 중거의 중심에는, 역사적으로 나뉘어졌던 사람들이 긴밀한 공동생활을 살아가는 혼합된 집단의 탄생과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 다듬어진 신실함을 효과성을 재정의하는 값비싼 제자훈련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도, 사회적 참여의 신실한 실천들은 파괴적인 분쟁 가운데서 희망의

확실한 표징들입니다. 본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자들을 용서합니다; 묵시적으로 부정의한 상황들에 도전합니다; 악을 그저 지나치지 않고 동화시켜 버립니다; 적대감 속에서

III. 화해의 소망

주님을 중거합니다; 반역자로 몰릴 때에도 평화를 추구하기를 계속합니다; 분쟁에 그저 참여하기보다 아파하거나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희망, 삶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의 더욱 근본적인 비전을 주입하고 도전하는 중요한 표징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또한 열심을 다해 사회의 화해의 표징들을 위해 일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국의 대표들이 대화하거나 폭력이 그쳐지거나 탄압이 감소되거나 적대감이 사라집니다; 양쪽에서 저지른 범죄와 파괴가 회복의 정의의 쪽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됩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더 큰 사회가 희생자들의 비참함을 알아갑니다; 고통적으로 나누어진 역사를 둘러싼 참된 진실이 적절하게 공동적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사이가 멀어진 단체가 평화적으로 살아가기를 동의하는 포용하는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더욱 정의로운 사회 구조와 실천들이 나타납니다; 적대하는 단체들의 아이들이 학교도 같이 가고 같이 뛰어 놀기 시작합니다; 다른 인종간의 결혼이 나뉘어진 역사적 경계선을 가로질러 증가합니다; 이웃들이 서로 나누며 평화적 삶을 영위하는 혼합된 공동체들로 되어갑니다.

적인 분별, 분열되어온 공동체와의 대화, 그리고 기도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 3. 우리가 분열되어온 사람들에게 경청하며 얼굴을

IV. 결론과 권면

화해를 21세기의 기독교 사명의 중심에 두는 것

분열된 사람들의 소원함과 고통 받는 자들의 고통은, 공개된 파괴적 분쟁 뿐 아니라 감추어진 것들까지 세상의 무너짐에서부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교회가 이런 고통과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분열됨을 슬퍼하고, 회개와 용서를 하고, 치유와 기독교적 증거와 긍정적 변화의 사절단들로써 변화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들을 따르도록 조심스럽게 초대합니다.

- 1. 복음과 기독교적 삶 그리고 21세기의 사명의 중심에 성서적인 총체적 화해을 복음 전도와 의로움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비전을 우리의 교회들과 재단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화해을 하나님께로서 오는 소망을 요구하는 오래고 깊진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 2. 우리는 현실도피주의 와 화해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습들을 확인하고 소멸해나가며, 그리스도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자신을 겸손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성서적 연구와 사회적 신학적 분석, 협력

맞 대고 이야기하기 위해, 어려운 분열상황들과 장벽들 그리고 경계선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해온 연합 (요17:20-21) 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서로 서로에 경청하며, 다른 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대화하며 기도에 힘쓸 것을 요구합니다. 기독교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이러한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노력들에 선두가 되어야 합니다.

- 4. 기독교 신앙의 표준으로써 주님의 근본적인 제자기를, 또한 깊진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제자훈련을 하나님과의, 또한 많은 때에 우리의 욕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과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새로운 근본적인 길들을 열어가는 사람들과의 여정으로써 포함시킨다.

- 5. 파괴적인 상황에서 중립하고 침묵하는 것을 거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게 점점 심해지는 비인간화와, 전 세계의 교회가 르완다에 있었던 1994년의 사건을 대량학살로 이름 짓는데 실패해버린 것 같은 부정의와, 교회와 시민과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의 성서적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중재자로서 참여하는 것 들을 언제나 분별해 가기를 부탁합니다. 교회 외부가 이런 일들을 알아가고, 특히 거대

한국제권력을 가진 나라로부터 그들에게 가해지는 위협들에 대항의 의지를 표명할 때, 이것은 진리와 정의의 국가적 목소리들을 지켜가는 엄청난 방편입니다.

IV. 결론과 권면

- 6. 목회자들과 회중들이 양자택일의 삶을 살수 있도록 그리고 평화를 향해 일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들을 빚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공동체들은, 분쟁들과 이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들을 명명하는 실천하도록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열과 장벽을 뛰어넘어 섬기고, 경청하며 증거를 품어가도록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고통 받는 자들을 싸매고 위로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크고 작은 몸짓과 대책을 통해 소망의 표징을 찾으며 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전에 이방인이고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의 주권아래 공동 예배와 친교와 사역에 참여 시켜야 할 것입니다.
- 우리 기독교 설교말씀과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의 화해를 기쁘게 공표해야 합니다. 깊은 무너짐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죄악과 이 세상 어두운 세력을 파하신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증거를 충실히 품은, 소망의 운반자들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알아야만 합니다.

V. 정의

이 논문에서 다섯가지 중요한 개념은 아래와 같이 이해되어집니다.

화해: 화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그에게로 화해” (골 1:19)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화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 과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간의 화해은 상호부조의 참여를 요구하는 상호적인 여정입니다. 이것은 기꺼이 잘못 행해진 것을 인정하고, 용서함으로 나아가며, 신뢰를 쌓아가도록 돋는 회복의 변화를 만들어가서 결과로 진리와 궁휼, 공의와 화평이 함께 거하도록 이끄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성취되었고, 무너진 세상의 화해의 사절단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교회에 위임된, 화해을 우리의 무너지고 부서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명으로써 화해을 받아들입니다.

파괴적인 분쟁: 분쟁은 인간의 타락 이후 무너진 세상의

상태이며 이는 건설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분쟁은 사람이건, 제도이건, 사람 집단과 공공체들이건 나라들이건 건에 둘 혹은 그 이상의 무리들 간의, 서로 용납치 않는 목적과 위치, 관점, 필요 혹은 행동들에 기초

V. 정의

하는, 불일치를 가리킵니다. 공개된 파괴이건 숨겨져 영속되는 관행이나 구조들이건 간에 분쟁은 심각하게 해를 가지고, 사람들과 공동체를 분열해 버려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파괴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파괴적 분쟁은,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로 연합되고 영속되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로 만들어버리며, 행동, 말, 사상, 정치, 제도, 혹은 심리학적 사회적 폐해와 또는 세상의 무너짐을 가속화하는 분열을 유발하는 무리들을 도구들로 사용합니다. 파괴적 분쟁의 결말은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감정과 기억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집단들에게,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퍼져가는 무능한 집단에게 까지, 사람의 죽음과 함께 사회와 하나님의 물리적 창조세계의 파괴에 까지 범위가 미치고 있습니다.

샬롬: 샬롬은 성경에서 비롯된 신학적인 개념이다. 성서적 증거는 샬롬을, 완전함의 행복의, 평화로움의 상태로 말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차원의 것들과 그들의 관계들을 번영케 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회복적 공의 : 이 논문에서 사용된 회복적 공의는, 데스몬

드 투투에 의해 쓰여진 용서가 없는 미래는 없다에서 정의된 “불화의 치유, 불균형의 교정, 무너진 관계들의 회복, 피해자들과, 그가 피해를 가한 공동체 속으로 다시 속해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아야만 하는 가해자들

V. 정의

모두의 회복”으로 사용되어집니다.⁴

주: 이 논문의 모든 성경인용들은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을 사용했습니다.

VI. 논문에 참여한 분들

다음의 21개 국가의 47명은 이 논문을 함께 만든, 화평에 대한 논의단체를 형성합니다. 그들의 수고는 태국의 파타야에서 가졌던 세계 복음주의 2004 포럼에서 최고에 달했습니다. 이 논문은 최종 형식이 2005년 1월에 승인되었습니다.

화해에 대한 논의 그룹의 지도팀

Chris Rice (convenor), Center for Reconciliation, Duke Divinity School, USA

Rev. Celestin Muskura (co-convenor), President & International Director, African Leadership and Reconciliation Ministries (ALARM, Inc.), Rwanda/USA

Moss Ntsha (co-convenor), General Secretary, Evangelical Alliance of South Africa, South Africa

John Runyon (facilitator), Associate Director for Enrollment Management and Student Services, Center for Urban Ministerial Education,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Boston Campus, USA

Dr. Sam Barkat, Senior Advisor to the President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hiladelphia, PA, USA

Dr. Julia Duany, Co-founder, South Sudanese Friends International (SSFI), Sudan/USA

Ken Gnanakan, ACTS Academy of Higher Education, India

VI. 논문에 참여한 분들

Bill Lowrey, PhD, Director, Peacebuilding and Reconciliation, World Vision International, USA

Emmanuel Ndikumana, Training Secretary for Francophone Africa, 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s (IFES), Burundi

Rev. Dr. Syngman Rhee, Professor of Mission and Evangelism and Director of Asian American Ministry Center, Union Presbyterian Seminary, USA

Jeanette Yep, Vice President/Director of Multiethnic Ministries/USA,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USA

화해에 대한 논의 그룹 회원들

Dr. Bishara Awad, President, Bethlehem Bible College, Bethlehem,

West Bank Palestinian Territories

Jean Bouchebel, Director, Resource Development, World Vision International, USA

Esmé Bowers, South African Board Chairperson, Africa Enterprise, South Africa

Andre Butozi, Peace, Reconciliation & Christian Impact Program Officer, World Vision Burundi, Burundi

Sandy Crowden, Territorial Resource Officer: Youth Education and Mission, The Salvation Army, Australia

VI. 논문에 참여한 분들

- Thorsten Grahn**, PhD, Director, International Ministries, Evangeliums-Rundfunk Germany, Germany
- Rev. Dr. John Harris**, Translation Consultant, Bible Society in Australia, Australia
- Robert F. Hunter**, Diversity and Justice Coordinator—Indiana,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USA
- Shino G. John**, Assistant to the President—Development, Nyack College,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USA
- Fr. Emmanuel Katongole**, PhD,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of Theology and World Christianity, Duke Divinity School, USA
- Lisa Loden**, Managing Director, Caspari Center for Biblical and Jewish Studies, Israel
- Manu F. Mafi**, Coordinator, Scripture Union, Pacific Island Nations, New Zealand
- Tom Mayne**, Advocacy and Policy, World Vision Australia, Australia
- Makram Morgos**, Director, New Life Ministry (Campus Crusade For Christ), Sudan
- Grace Morillo**, General Secretary, Unidad Cristiana Universitaria, Colombia
- Jhan Moskowitz**, Mid West Director, Jews for Jesus, USA
- Dr. Beatrice Odonga Mwaka**, Project Director (Africa), International Center for Reconciliation, Coventry Cathedral, United Kingdom

VI. 논문에 참여한 분들

- James Odong**, National Peace Building Coordinator, World Vision Uganda, Uganda
- Rev. Fr. Andrew Ovienloba**, Director, Justitia et Pax Network for Community Peace Education, Nigeria
- Ngul Khan Pau**, J.M. General Secretary of Council of Baptist Churches in Northeast India
- David W. Porter**, Director, ECONI (Evangelical Contribution on Northern Ireland), Northern Ireland
- Nicholas Rowe**, Ph. D,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Diversity and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Gordon College, USA
- Nabil Elia Samara**, Director and Coordinator, Bethlehem Bible College, Nazareth, Galilee, Israel
- Rev. Dr. Klaus Schaefer**, Theology of Mission Desk, Evangelisches Missionswerk in Deutschland (EMW) Association of Protestant Churches and Missions in Germany, Germany
- David Schroeder**, President, Nyack College and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USA

각주

¹ 아래의 예들은 현제를 만드는 과거의 비극에 기초 되어질 수 있고, 이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대량학살, 내전, 혹은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 자신의 나라로부터 강제적 추방을 당했거나 소유권을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 노예제도, 식민지배, 경제적 탄압과 부정, 그리고 합법화된 혹은 문화적으로 과고들은 인종차별과 사회적 차별현상; 오랜 증오심과 비인간화 되고 악마화 된 정책; 잔학한 행위와 사회 악에 대한 중립성과 침묵; 특정 단체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다른 단체는 무시되어 소외시키는 경제, 사회, 정치적 관행과 구조의 조용한 지속; 빼아픈 교회의 분파; 인종적 유전적 우월성의 이론들; 권력욕과 지배욕; 그리고 값진 화해와 속죄의 고난 보다 더 군대를 신뢰하는 것.

² 예를 들어, 남 아프리카에서는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동질집단원리”가 인기를 얻습니다. 인도에서는 성장 교회에서, 미국에서 발생해온 인종차별과 소수민족의 분리현상과 처럼, 종종 카스트 제도의 분할을 소리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³ 살롬의 성서적 이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레위기 26:4-6; 시편 34:14; 이사야 1:16-17, 32, 11:6-9a, 16-17; 예레미야 29:10-14; 에스겔 34:25-31; 아모스 5:14-15; 미가 4:2-4. 신약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상을 에이레네 (“평화”)라는 그리스 신화의 개념을 사용한다: 마가복음 4:37-29; 누가복음 4:16-21; 에베소서 2:12-14; 요한계시록 7:9, 21:1-4.

⁴ 테스몬드 투투. 용서함 없이는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뉴욕: 더블데이, 1999, p. 55.